

6. 성적환상 Sexual Fantasy



빌이 청소년들에게 단정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아이를 키우는 미혼의 젊은 여성이 브라우저를 풀어놓고 젖을 먹이기 시작했다. 빌은 현지 문화에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몰랐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메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남자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건물 쪽으로 서서 훤히 보이는 데도 소변을 보았다. 그녀는 스스로 여러 상황에 잘 대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갑작스런 노출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고국이라면 이런 남자는 공공 장소에서의 노출죄로 체포 되었을 것이다.

미혼 선교사들이 휴식과 재충전을 갖기 위해 ‘가족들이 가는 해변’에 가서도 상반신을 노출시키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보게 되거나 노출이 심한 커플이 신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오는 생각들은 미혼 선교사에게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 답을 요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성행위에 대해 생각하는가?

모든 미혼들이 성행위에 대해 공상을 하지는 않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1930년대 두 심리학자가 200명의 미혼 대학생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하여 상상했던 적이 있는지, 또 최근에 그랬는지를 물었을 때, 성행위가 가장 상위 주제에 위치해 있었고, 이에 대해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남성은 97%, 여성은 96%가 성행위에 대한 공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 때는 텔레비전, 인터넷, DVD가 없던 시절인데도 단 3-4%만이 그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그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들도 이에 대해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수는 성행위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 있으나, 미혼인 선교사들을 포함한 대다수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를 끼치는가?

성적 환상으로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 죄 된 것일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이것은 더 다룰 것임)
- 종종 성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어 실제 결혼 후에 실망하는 일이 있다. 포르노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감독의 상상대로 포즈를 취하거나 연기를 하게 되므로 ‘실제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다.
- 그런 환상은 한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로 얻어지는 새 자극들을 찾게 만든다. 그래서 포르노 잡지의 독자들은 한 잡지를 몇 주만 보고 중단하거나 팔아버리곤 한다. 지난 것들은 무료하므로 그런 잡지들은 매달 새로운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출판한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적 환상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많은 미혼 성인에 의한 환상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간음과 연관된 계명에 대해 “내가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니라(마5:28)”고 했다. 예수님이 혼전 성행위가 아니라 간음에 대해 말하신 것을 주목하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성적 환상에 대해 말하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성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었다. 11세 혹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당시 문화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드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 두분 다 산상수훈에 나온 ‘탐욕스럽게(lustfully)’라는 단어를 실제 자신들을 향해서도 쓰셨다.

-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lusted).” (눅22:15)
- “곧 율법이 탐내지(lust)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lusting)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롬 7:7)라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율법이 말하는 대목은 흥미로운데, 신명기 5장 21절에서 말하기를,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이나 땅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탐한다는 것은 단지 스쳐가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강렬하게 원하는 것’ 또는 ‘거기에 욕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시대 이후로 바뀌었는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적 환상을 돋구는 자료를 얻는 것이 더 용이해졌다.

- 천년 전 성경 시대에는 성적인 자료들이 그림이나 조각물 형태로 있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이나 비교적 소수에게만 보는 것이 가능했다.
- 수백 년 전에는 인쇄술과 이동식 활자의 발명에 따라 책, 잡지, 포스터, 게시판 등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다.
- 몇 십 년 전에는 레코드판이나 테이프에 녹음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극장에서의 영화나 집에서의 비디오 테이프, 레코드판이나 카세트 테이프의 노래로 이런 자료들이 이용되어졌다.
-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런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서 CD, DVD나 공중파들로 그 이용이 가능해졌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방법을 따랐던 때를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는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위성을 통해 책을 다운로드 한다. 무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공중을 통해 이메일을 주고 받고 있다. 핸드폰으로 음성 대화, 문자 메시지, 음란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문자 그대로 ‘공중’을 통해서 말이다.

문자 그대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나 이것들이 가능하므로 심지어는 크리스천 사역자들도 이용을 한다. ‘크리스천 투데이’ 설문이 보여주기를 36%의 미국 목사들이 현재 사이버 포르노로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박사 학위 논문들이 보여 주기를 선교사의 퍼센트도 그 정도 또는 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한다.

잠잘 때의 꿈에 대해서?

성경에 꿈이 여러 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신약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시작될 때에 나온다. 어떤 꿈은 무섭고, 어떤 꿈은 예언적이다. 심지어 작가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묘사한다. 어떤 꿈도 성경에서는 죄로 기록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꿈에 나오는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꿈을 죄로 여기시는 대목은 없다. 종종 꿈은 한 사람이 생각하거나 행하고자 하는 것을 반영한다. 한 사람이 성적인 환상 또는 부도덕한 행동에 빠져 있다면, 이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정욕이나 부도덕에 죄가 있는 것인지 꿈꾸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미혼인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미혼 선교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유혹과 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유혹을 경험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는 않는다. 예수님도 성적인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다(히4:15).

다윗 왕은 성적 유혹을 받았고 죄를 짓고 말았다(삼하11:2-3).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그에 굴복하는 것이 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혹과 죄 사이의 경계를 넘는 시점을 안다. 잠이 오지 않아 거닐다가 다윗은 옆 창문 너머에 매력적인 여인을 보았는데 이것은 유혹이지 죄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을 지나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한 것이다. 이것이 결국 다윗을 간음과 살인으로 이끌었다.

둘째, 성적인 유혹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다음의 것들을 해라.

- 거울이나 컴퓨터 화면 같이 잘 보이는 곳에 쪽지를 적어놓아야 한다.
- 이 주제에 관한 성경문구를 자주 읽어봐라(레18-21장, 고전 5-7장).
-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엡3장, 골4장).
-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고전10:12).
- 모든 생각을 잘 붙들어야 한다(고후10:15).
-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빌4장).

셋째, 각자가 유혹을 잘 피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유혹에 이르게하는 혼한 일들을 피해라.

- 오락: 특정 영화, 텔레비전 쇼, 음악, DVD, CD, 비디오 게임.
- 인쇄물: 특정 책, 잡지, 신문, 열람물.
- 디지털 자료: 특정 인터넷 사이트, 대화방, 유튜브, 온라인 자료.
- 공공 자료: 일상에서 쉽게 보는 것, 예를들어 게시판, 포스터, 가판대, 계산대.

넷째, 피하는 것에 실패했을 경우, 대처할 계획이 필요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인 자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래에 대처 행동을 열거해 보았다.

- 오락: 걸어서 나가거나 불을 끄거나, 채널을 바꾸거나, 버려라.
- 인쇄물: 버리거나, 구독을 중지 하거나, 우편물에서 빼라.
- 디지털 자료: 사이트 창을 닫고, 도구 모음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클릭해라.
- 즉시 경로를 변경하거나, 눈을 바로 떼거나, 눈을 감아라.

마지막으로 미혼인 선교사들은 매주 만나는 상담자를 두어야 한다. 직접 대면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불가능하면 스카이프로 만나는 것도 그 대안일 것이다. 그들이 웹사이트 www.covenanteyes.com 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담자가 온라인상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다음 책에서 더 유용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Christine Colon 과 Bonnie Field 가 쓴 책인 “오늘날 교회에서 왜 독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가” (2009) (Brazos출판사, Baker부서)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